

A교대 3학년 학생들의 교육실습 경험과 의미 분석*

김민조¹, 이승민^{2, 3}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초등단계 교육실습에서 A교대 3학년 학생들이 교육실습 전-교육실습-교육실습 후 단계별로 어떠한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설문 조사와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의 목적을 학년별로 달리 규정하면서, 3학년 교육실습은 ‘본격적으로 교직현실 경험하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즉, 교육실습의 목적을 독자적 사회영역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교원양성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교육실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째, 교육실습 사전 경험은 ‘대학과 예비교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하지만 무용한’, ‘불복불이지만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교사에게 교육실습 기간 경험은 ‘우연에 맡겨진 교사로서의 성장’으로, ‘유용 또는 무용’, ‘학교마다 너무도 다른’, ‘필수적인 경험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구상해왔던 수업 또는 현실적인 수업’, ‘지금 또는 교사가 되고 나서’, ‘존재감 백 또는 제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넷째, 예비교사에게 교육실습 이후 경험은 ‘개별 예비교사에 따른 차별적 경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교육실습 경험은 어떤 학교에 배정되느냐, 어떤 교육실습 지도교사를 만나느냐, 어떠한 자세를 가진 예비교사이냐에 따라 그 질에 있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교육실습은 교사로서의 적성을 확인하고 교직을 실제 경험하고, 교육활동을 본격적으로 해 본다는 점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의미 있고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먼, 첫째, 예비교사 대상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학년별 로 주제와 내용을 달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둘째, 교육 실습 기간 동안 예비교사들이 다른 학생들과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예비교사 대상 특강과 관련하여 학생 이해, 학생 지도, 수업 관련 특강 및 실천 경험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교육실습 경험이 우연이 아닌 어느 정도 표준적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실습 이후 성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안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의미있는 성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교대 교육실습, 3학년 교육실습, 교육실습 경험, 교육실습 의미

* 본 논문은 연구자들이 2018년 (ACE+사업) 청주교육대학교 발전 연구과제로 수행한 「3학년 실습중점학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청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청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3. 교신저자

I. 서론

교직은 교사로 임용되고 학교에 발령받는 순간부터 경력교사와 동일한 일을 수행해야 하고, 더 나아가 높은 수준의 교육전문가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 받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한편 교직은 공동의 전문 기술문화의 부재로 다른 전문직에 비해 전문사회화 경험이 약한 직업으로 논의된다(Lorti, 1975, 진동섭 역, 1996). 이러한 교직사회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일반적으로 공식적 교육과정(일반교육과 전문교육), 교육실습, 현직교육과정을 통해 교직사회화를 경험한다.

한국에서 교사양성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 전공, 교직과목(교육실습포함)으로 구성되고 있다. 교직과목은 다시 교직소양, 교직이론, 교육실습으로 구성되고 교육실습은 2009학년부터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을 포함하는 학교현장 실습과 교육봉사활동으로 구성되고 있다. 교육실습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비슷한 양태를 보이지만 약간씩 차별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초등교사 양성대학(교육대학교 등)은 1학년~4학년에 걸쳐 실습 목표와 활동을 달리하면서 시기와 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등교사 양성대학(사범대학)은 주로 4학년 시기에 1회 4주간 집중적인 교육실습이 한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실습은 담당해야 할 업무를 한꺼번에 맡아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 현장을 실제 경험하고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교육현장에 실제 적용해보는 과정으로 교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이에 예비교사와 신입교사들이 느끼는 교육실습의 유용성은 교사교육의 어떠한 교육과정 영역보다 큰 상황이다(Lorti, 1975, 진동섭 역, 1996). 김병찬(2005)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육실습 경험은 교직에 대한 강렬한 “첫사랑”이었다고 기술하면서,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 과정에서 교직원 등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경험하고 있다고 보았다.

관련 선행 연구들은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들의 교직동기, 교육적 신념과 지식, 역량과 자아효능감, 교육적 가치 차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영주, 2018; 백순근 외, 2007). 한편 교육실습의 형식적 운영, 짧은 교육실습 기간, 실습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부족, 지도교사와 지도교수 지도의 미흡, 예비교사의 학습동기 유발 미흡 등의 문제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강현석, 2013; 전제상, 2018).

국내 교육실습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노숙원 외(2018) 연구에 따르면, 교육실습 관련 연구가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아교육단계와 중등의 경우

예비교사의 실습 경험, 반성적 실천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반해 초등단계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최근에 수행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그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 김병찬(2005)은 교육실습 관련 선행 연구 분석에서 유아 및 초등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반면,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김병찬, 2005:53)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단계 교육실습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초등단계 교육실습은 대학별로 조금씩 차별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1학년부터 4학년 시기에 걸쳐 교육실습 목적을 달리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학년의 교육실습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A교대 3학년 교육실습은 3학년 2학기에 2주간 수업능력과 실무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3학년 시기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업설계 및 실행 능력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기로서,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시기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3학년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을 들여다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A교대 3학년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 전-교육실습-교육실습 후 단계별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학생들에게 그 경험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학년 학생 대상 설문 조사와 연구자들이 3학년 교육실습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우선, 3학년 대상 설문조사는 A교대에서 교육실습 사후 평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은 연구자들이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육실습의 의미

교육실습은 학교 현장의 일상적인 교육 활동을 관찰하고 현장 교사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 및 업무를 직접 경험해 보는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통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학교 현장의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성찰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하고 교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교육 실습은 교사양성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교직의 실무적인 내용을 경험하는 거의 유일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최성욱, 2010).

교육실습의 의미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병찬(2005)은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김병찬, 2005: 51-53). 첫째, 교육실습에서 이론과 실제의 접목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교육실습을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운 교과지식과 이론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해보는 과정이라고 본다. 둘째, 실제 교육현장을 경험하는 것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교육실습을 교사로서 수행하는 교육활동 또는 교직생활의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셋째,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자기 적성을 점검 또는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넷째, 교육실습을 실제적인 교직 준비 과정으로 보는 관점으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배우고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다섯째, 현장연구자로서의 교사상에 터하여 교육실습을 교육현장 연구 및 실천의 과정으로 본다. 여섯째, 교육실습을 교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식 또는 의례로서 그 의미를 규정한다. 사실 이들 관점들은 배타적 관점이기 보다는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교육실습의 의미 규정은 대체로 몇 가지 관점이 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혜영(2008)은 교육실습을 ‘예비교사가 교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서 현장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교사의 일을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교사로서의 실천적 수행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교육부(2015)는 교육실습의 목적을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교직 경험을 통해 대학에서 배운 이론 및 기능을 교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남운경 외, 2019). 이승현 외(2016)는 교육실습을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의 하나로 교육이론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해 봄으로써 교사의 활동을 경험하고 자신의 교직 적성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실습은 대체로 교사양성대학에서의 배움과 학교현장에서의 실천의 중간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실습에 접근하는 구조적 틀을 논의하고 있는 조석훈(2008)의 연구는 눈여겨 볼만 한다. 그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실습의 관계를 연속 또는 독자적인 사회 영역으로 볼 것이냐로 그 연구 질문을 구분하였다. 더 나아가 교육실습을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일부로 보는 경우 교육실습이 위상을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종국단계 또는 중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교육이론의 현장 적용, 교직활동 경험 습득, 교육기법 연마 등으로 교육실습의 목적이 설명되는 관점은 교육실습을 교사양성교육과정의 종국단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학교교육의 현황 이해, 교육실습생의 교직 적성 점검 등은 교육실습은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중간단계로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교육실습 관련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교육실습 제도 일반에 관한 연구, 개별 대학의 교육실습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예비교사 또는 교육실습 지도 교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교육대학교 또는 초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설양환 외(2019)는 13개의 초등교원 양성기관 학교현장실습 운영 현황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교육실습 유형, 목적 및 내용, 실습시기, 실습기간, 이수학점, 실습대상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초등 교원양성기관에 따라 교육실습 시기 등에서 차별적인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교원양성기관별로 교육실습 유형, 이수학점, 교육실습 대상 학교 등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상(2018)은 초등교육기관의 교육실습 운영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교육실습 학점과 기간의 미흡, 교육실습학교의 전문성 부족, 교육실습 내용의 기준 부족, 교원양성기관과 학교현장과의 연계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황윤한(2007)은 교육대학교 교육실습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교육대학교 교육실습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 짧은 교육실습 기간, 교육실습과 대학과의 연계 미흡, 질 높은 교육실습교사의 확보 어려움, 실습생들의 수업실기능력 검증 곤란 등의 문제들이 도출되었다. 이들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교육실습 틀의 제한, 교육실습 지도교수 부재, 특정 학교에 의존한 교육실습 지도교사 확보, 교육실습록 활용방안 미흡,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교육실습 개선 노력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 대학의 교과교육 실습 사례 벤치마킹, 교육실습지도교사 기반 지도교사 지정제도, 교육실습 포트폴리오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김종우(2018)은 학교현장 교육실습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대학교와 실습학교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실습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이해 시간 확보, 실습전 워크숍 개최, 교육실습 후 공동의 보고회 또는 평가회의 필요성, 실습 보강 문제 해결, 실습학교의 다양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20여년 전 수행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된 것이다. 김영주(2018) 연구는 T교대의 교육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실습시기와 기간의 적절성 등 운영 실태와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T교대의 교육실습 프로그램은 참관실습,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학습지도실습은 일주일에 2회 정도 오전 4시간을 학교에 머물러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연구 결과는 교육실습 유형에 따라 교육실습에 대한 만족도, 실습시기와 기간의 적절성, 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용(2008)은 초등예비교사의 인식론적 신념과 수업개념이 교육실습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교육실습을 통해 인식론적 신념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교육실습 후 혼합적 신념 수준이 증가하였다. 또한 전문가 지식 측면에서 세련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초등예비교사들이 이상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교사중심 수업에 대한 생각이 교육실습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성(2019)은 교육실습에서 지도교사의 특성이 실습생의 수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실습에서의 지도교사를 선정하는 과정과 수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교사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도교사의 특성 차원에서 과업중심성과 관계중심성이 모두 높은 교사가 교육실습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도교사의 과업중심성과 관계중심성이 모두 실습생의 수업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실습생의 지도교사 선정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질 높은 실습 지도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용학(2014)은 3년간 교육실습 교사로서의 가르침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표준화된 수업보이기, 행동중심적 수업지도안 만들기, 수업협의회에서 수업 대화하기, 새로운 학습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승현 외(2016)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실습지도교사의 실습 지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실습 지도 경험의 4개 범주, 11개 주제 묶음, 18개의 주제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실습 지도교사에게 교육실습 경험이 교사 전문성 인식과 성장에 의미있는 변화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사례

본 연구는 3학년 학생들의 교육실습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A교대를 연구 사례로 분석하였다.

A교대 교육실습은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2017학년도까지는 정규 교육실습과 교육봉사 실습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실습의 목적은 예비교사 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교현장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우선, 예비교사 차원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학교현장의 맥락 속에서 실천하고 성찰하며, 이를 통해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명확히 확립하고 전문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 적성을 확인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 또한 대학과 학교 현장 차원에서는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통해 대학과 학교가 공동 발전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목적을 둔다.

〈표 1〉 A교대 교육실습의 구조(2017학년도까지)

영역	운영 방식	운영 시기	운영 기간	실습 중점
교육실습Ⅰ	참관 실습	1학년 1학기	1주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전반적 이해
교육실습Ⅱ	참관 수업 실습	2학년 2학기	2주	초등학교 일상사와 수업 현상 이해
교육실습Ⅲ	수업 실무 실습	3학년 2학기	2주	수업 능력과 실무 능력 훈련
교육실습Ⅳ	종합 실습	4학년 1학기	4주	교직 수행 준비도 점검
교육봉사실습	수시 실습	1-2학년	30시간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태도 형성

정규 교육실습은 1-4학년별로 교육실습Ⅰ(1학년), 교육실습Ⅱ(2학년), 교육실습Ⅲ(3학년), 교육실습Ⅳ(4학년)로 나누어 실시되며, 교육봉사 실습은 개별적인 실습 프로그램으로서 1-2학년 동안 총 30시간을 이수한다. 교육실습Ⅰ의 목적은 초등학교 현장을 참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교육실습Ⅱ의 목적은 1학년에서 참관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상사와 수업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교육실습Ⅲ의 목적은 1, 2학년에서의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능력과 기본적인 실무 능력을 익히는 것이고, 교육실습Ⅳ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의 교직 수행 준비도를 점검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교육봉사 실습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태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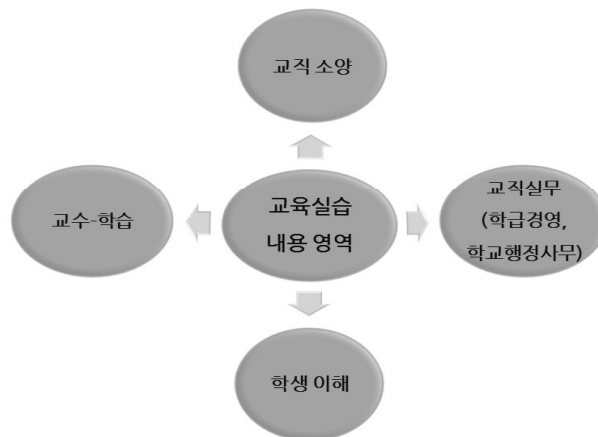
한편, A교대는 기존 교육 실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2018학년도부터는 1학년과 2학년 교육실습을 정규 교육실습 체제에서 수시실습 체제로 전환하였다. 단계적으로 3학년과 4학년 교육실습을 유연학기제 도입의 맥락에서 교육실습 중점학기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교육실습의 목적을 학교 현장 경험을 통해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 함양, 교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및 이론 적용에 따른 심화 적용, 예비 교사의 교직 적성 파악 및 자아 정체성 탐색의 기회 제공으로 재설정하였다.

〈표 2〉 A교대 교육실습의 구조(2018학년도 이후)

영역	운영 방식	운영 시기	운영 기간	실습 중점
교육실습Ⅰ	수시 실습	1학년	5일(40시간)	교직 이해 및 교직 적성 함양
교육실습Ⅱ	수시 실습	2학년	10일(80시간)	아동 이해 및 상담 능력 개발
교육실습Ⅲ	정기 실습	3학년 2학기	3주*	수업 실행
교육실습Ⅳ	정기 실습	4학년 1학기	6주*	수업 실행 및 교직 실무

* 2020학년도 현재 3주와 6주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중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기본 과업을 중심으로 교육 실습에서는 크게 교사의 교직 소양, 학생 이해, 교수-학습, 교직 실무(학급경영, 학교행정사무 등) 등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하되, 교육실습단계별 중점 내용에 있어 점차 심화·확대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다. 다만, 실습 협력 학교의 실정에 따라 창의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림 1] A교대 교육실습의 내용 영역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3학년 학생들의 교육실습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실습 경험과 의미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학년 교육실습 참여 학생 대상 설문 조사와 연구자들이 3학년 교육실습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반구조화된 질문지

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3학년 대상 설문조사는 A교대에서 교육실습 사후 평가를 위해 실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초점집단면담을 중심으로 연구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A교대 3학년 학생들이 교육실습의 계획과 실행, 성찰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습 전반에 대한 활동과 실제 경험을 파악하고,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의 계획과 실행, 성찰 과정에서 학생들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그 의미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표 3〉에 제시된 면담 대상자는 다양한 실습 학교가 포함되도록 선정된 것이며, 면담은 2명 또는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2018년 11월 27일에서 29일에 걸쳐 3차례 진행되었으며, 면담지를 사전에 배포하여 의견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실제 면담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2018학년도 11월 5일부터 16일 2주간 3학년 실습이 진행되고 바로 면담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면담학생들의 실습경험에 대한 기억의 정확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 때 면담 내용은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녹음한 후에 전사를 하고, 전사를 한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분석하였다.

〈표 3〉 면담 조사 대상

학생	학년	심화 과정	실습학교
학생 1	3학년	국어교육	A초등학교
학생 2	3학년	음악교육	B초등학교
학생 3	3학년	초등교육	B초등학교
학생 4	3학년	초등교육	C초등학교
학생 5	3학년	영어교육	D초등학교
학생 6	3학년	영어교육	E초등학교
학생 7	3학년	영어교육	F초등학교
학생 8	3학년	영어교육	G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육실습의 계획과 실행, 성찰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면담 조사 내용을 다음 〈표 4〉와 같이 구성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3학년 학생들의 교육실습 경험에 보다 초점을 두고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4〉 면담 조사 내용

항목	면담 조사 내용	
교육실습 III 목적		
교육실습 III 경험	교육실습 전	대학 오리엔테이션
		실습학교 결정
	교육실습 기간	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
		특강 (주제 포함)
		학생관련 활동
		수업(교수학습)
		교직실무
		지도교사
		동료 실습생
		실습 지도교수
	교육실습 후	교육실습 성찰
		교육실습 평가
		교육실습 만족도 조사
		교육실습 후기
	교육실습 III 오리엔테이션의 도움 여부	
	교육실습 III 의미있는 활동 3가지 선정	
교육실습 III 개선	교육실습 전	대학 오리엔테이션
		실습학교 결정
	교육실습 기간	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
		특강 (주제 포함)
		학생관련 활동
		수업(교수학습)
		교직실무
		지도교사
		동료 실습생
		실습 지도교수
	교육실습 후	교육실습 성찰
		교육실습 평가
		교육실습 만족도 조사
		교육실습 후기
	교육실습 III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2주 → 4주)	
	교육실습 III 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 교육실습 사전 프로그램 운영	
	- 교육실습 사후 성찰 프로그램 운영	

IV. A교대 3학년 학생들의 교육실습 경험과 의미 분석

1. 교육실습(Ⅲ)의 목적 : 본격적으로 교직 현실 경험하기

교육실습 Ⅲ은 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의 이론을 배우고 교사로서 전문성을 연마해 가는 예비 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직 활동 전반을 체험하며, 1, 2학년 시기 교육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능력과 기본적인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면담 학생들은 교육실습 Ⅲ에 대해 교육실습 I, 교육실습 II 보다는 교사라는 직업의 현실을 실제 생생하게 경험해 보는 데 중점을 두고 인식하였다. 또한 실무능력 보다는 수업적인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고 교육실습 Ⅲ의 목적을 인식하였다. 즉 1, 2학년 교육실습은 ‘맛보기’였다면, 3학년 교육실습은 ‘본격적인 첫 단계’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해 ‘1, 2학년은 입문, 3학년은 발전, 4학년은 심화’라고 교육실습 단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요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수업 능력 향상, 부수적인 목적은 교직 실무 경험, 교직 적성 확인, 교수 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학교에 적용해 보고 다양한 실제적 경험을 하는 것,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학교에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 아동과 실제적 수업 경험, 현장교사와 비슷하게 학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학생 1: 굉장히 잘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 전 사실 교육실습 Ⅲ를 통하여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선생님이 ... 선생님이 나에게 진짜 맞는 직업인가? 라는 ... 1, 2학년 생각을 안했거든요. 학교가 너무 재미있고 애들이 너무 좋고 ... 너무 마음에 들고 ... 교육실습 Ⅲ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라는 게 과연 나에게 맞는 직업인가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학생 3: 1학년은 뭔가 맛보기였고, 2학년은 입문, 3학년은 발전된 거고, 4학년은 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이번에 2학년 때는 이상적인 교사의 상을 봤다면 3학년 때는 현실적인 교사의 삶으로 다가왔고 ...

이러한 교육실습 Ⅲ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은 교육실습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교육실습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교육실습생들은 교육실습 Ⅲ의 주제별 중요도에 대해 4명 중 3명이 학생 이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교수 학습, 교직 소양, 현장 실무의 이해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3학년 교육실습생

들은 대체로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2. 교육실습(Ⅲ) 사전 경험 : ‘대학과 학생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가. 대학의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 ‘필요하지만 무용한’

A교대는 교육실습 Ⅲ 사전 활동으로 대학에서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2018학년도에는 급식비 안내, 실습록 제공, 학교와 교사관련 동영상 3편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재학생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2018학년도 총학생회 공약 사항으로 설정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2: 저희 총학생회에서도 공약사업으로 ... 사실 교육실습 OT에 대해 진짜 말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걸 공약으로 걸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하고도 미팅을 2번 정도 했을 거예요.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너무 터무니없이 길다. 사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는 거니까 모르겠는데 2, 3, 4학년들도 다 모아두고 기존에 한 1시간정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까지 굳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어? 여기 모여서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A대학은 2018학년도에는 대학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야간에 진행되던 일정을 학년별로 협의하여 일과시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현장교사가 제작한 동영상 3편을 시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A교대 3학년 교육실습생 대상으로 교육실습 프로그램 및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실습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통이라는 의견도 26.5%, 부정적인 의견이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 오리엔테이션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만족도

학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수
A초	21	23	23	9	7	83
B초	1	3	2	2	2	10
C초	2	6	6	2	3	19
D초	7	6	2	2	2	19
E초	15	9	15	3	2	44
F초	4	3	2	1	1	11
G초	28	18	19	4	5	74
합계	78	68	69	23	22	260
%	30.0	26.2	26.5	8.8	8.5	10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평가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교육실습 전 대학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3학년 학생들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접할 수 있었다. 면담 학생들 모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동영상 시청을 왜 모여서 해야 하는지, 자료를 배부하고 각자 읽어보면 될 내용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4년 동안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학생들이 유용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학생 1: 오리엔테이션 ...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했냐면, 그 몽당분 필이라고 현직교사분이 촬영하신 ... 그 재미있는 동영상 있잖아요. 뭔가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 그걸 3편인가를 쭉 보고 마치겠습니다하고 마쳤거든요. 저희는 어? 어? 이런 느낌이 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아야 하나 ... 만약에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거라면 온라인 강의 ...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접속을 해서 이걸 신청을 하면 확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학교에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동영상 3편을 보려고 이 시간에 여기 다 같이 모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좀 세게 말했지만 ... 예 ... 이게 왜지? 이게 정말 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담 학생들은 대학의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1, 2학년은 교육실습에 아직 잘 모르는 점들이 많으므로 1, 2학년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3,4학년의 경우 생략하고 좀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실습학교 결정 전에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오리엔테이션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실습학교와 관련한 행정적인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학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 4: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 정도는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몇 번의 수업을 저희가 하게 될 예정이고 각 학교 ... (중략)...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2주동안 다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어디에서 묵을 거고 ...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알려줘야되는 건데.. 그것조차 잘 안되어 있었고. 그건 좀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일정은 학교에서 ... 그런 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나. 실습학교 결정 : ‘복불복이지만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실습 학교는 대체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학교가 적힌 종이를 제비뽑기를 하여 결정하는 방식과 제비뽑기를 통해 학교선택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있다. 실습학교 결정 방식은 심화반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실습학교 결정 방식에 대해 학생들은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학교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습학교의 실습지도에 대한 좋은 평가가 2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거리 28.1%, 강제배정 26.2%였다.

〈표 6〉 실습학교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

학교	거리	함께 갈 동료	실습학교의 실습지도에 대한 좋은 평가	강제 배정	기타	사례수
A초	19	7	26	22	9	83
B초	3	0	1	5	1	10
C초	3	3	11	1	1	19
D초	1	3	11	3	1	19
E초	8	3	12	15	6	44
F초	8	1	1	1	0	11
G초	31	3	14	21	5	74
합계	73	20	76	68	23	260
%	28.1	7.7	29.2	26.2	8.8	100.0

면담조사에 따르면, 면담 학생들은 E초의 경우 교육실습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많으면서 대체로 피하는 경향이 있고, 거리, 친한 친구와의 관계 등이 실습학교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교통비 등의 부담으로 학생들이 이동거리를 많이 고려한다고 밝혔다. 초등심화반의 경우 기숙형태로 교육실습이 진행되는 C초등학교의 경우, 별도로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정원을 넘을 경우에는 지원한 학생들끼리 제비뽑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학생 2: 저희는, 과마다 다 달라요. 저희과 같은 경우는 실습학교를 다 적은 다음에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해요. 인원이 다 찬데는 결정이 된 거고 1명 가야 되는데 3명이 신청했다하면 거기서 제비뽑기를 돌려서 나머지 두명은 다른 학교 빌거 아니에요? 덜 신청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에다가 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 2: 보통 E초를 많이 피하고(뺀세다고) 일단은 첫 번째로 E초등학교는 피하고, 피하고 났으면, 일단은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3. 교육실습(III) 기간 경험 : 우연에 맡겨진 교사로서의 성장

가. 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 : ‘유용 또는 무용’

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다. 학교시설 안내와 교육실습 일정 안내가 주로 이루어졌다. 실습학교별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실습 자료와 파일철 배부, 학교 시설 안내와 사용 방법 설명, 교육실습 일정 안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사항, 학교 시설 안내’, ‘학교 시설 안내, 대표 교생 선발, 실습 학급 배정’, ‘실습 시간표 안내’ 등이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학교시설 안내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교육실습생이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특히, B초등학교의 경우 수시실습학교로 선정되었다가 정규실습학교로 전환된 학교로, 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 등이 아주 간단하게 끝나고 교장선생님 특강으로 이어진 경우였다. 교육실습생은 C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학교 시설 안내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 4: 저희는 갔는데 ... 우리학교는 어떻고 ... 이런 설명도 하고 학교 인원이 너무 적은 학교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듣고, 그다음에 학교를 전체 구경을 한번시켜 주셨어요. 이제 C초등학교가 예술꽃 학교라고 해가지고 국악이나 우리나라 전통 문화 쪽으로 방과후 수업이나 그런게 많이 이루어지는 학교더라구요. 3학년부터 국악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민요나 국악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자기 악기가 하나씩 있대요. 그래서 맡은 악기가.. 딱 갔는데.. 3학년부터 6학년 애들까지 모여가지고 강당에서 국악공연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왔다고, 저는 그게 대개 좀 좋았어요.

나. 실습학교 특강 : ‘학교마다 너무도 다른’

실습학교 특강은 학교별로 제공되는 특강의 질적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A교대는 필수특강과 학교선택 특강으로 제안하고 있다. 교육실습 Ⅲ의 특강 주제는 교사의 윤리, 교사의 권리와 의무, 학생 행동문제의 해결방안, 학생의 행동문제 해결 방법 및 사례, 다양한 관찰지를 활용한 수업 관찰 및 성찰, 교과별 수업 설계의 특성 이해, 수업 설계 및 실행, 학교장과 리더십,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학교 조직구조의 이해, NEIS 및 공문서 작성 실습 등이 제안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교육실습 Ⅲ의 주제

영역	주제	
	실습주제	활동 및 필수 특강 주제(* 필수)
교직 소양	교직윤리	교사의 윤리
		교사의 권리와 의무*
학생이해	초등학생의 행동문제	학생 행동문제의 해결방안
		학생의 행동문제 해결 방법 및 사례
교수-학습	수업 설계 및 실행	다양한 관찰지를 활용한 수업 관찰 및 성찰
		교과별 수업 설계의 특성 이해
		수업 설계 및 실행
교직실무	현장 실무의 이해	학교장과 리더십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학교 조직구조의 이해
		NEIS 및 공문서 작성 실습

한편 교육실습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현직 선생님들의 특강 대부분이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특강이 너무 많아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보였다. 면담 학생들은 ‘교사의 권리와 의무, 학생 행동문제의 해결 방법 및 사례, 수업설계 및 실행, 학교장과 리더십,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학교 조직구조의 이해’등의 주제가 실습학교에서 특강 주제로 다루어졌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강이 많았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A초는 행복씨앗학교로서, ‘Open Space’라는 이름으로 실습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로 open space를 열고, 예비교사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강의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활동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동일한

시간 내 여러 주제가 진행되어 선택할 수 있어 좋았지만, 듣고 싶은 주제를 듣지 못하는 제한점도 있었다.

학생 1 : 저희는 이거 정말 정말 좋았던게 ... A초등학교는 주제 선택 워크숍이라는 걸 진행했어요. 이틀 동안은 ... 담임 선생님이 한번 워크숍할 때 6분 정도가 각자 다른 주제를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워크숍을 ... 학생들이 그 중에서 어 ... 이 주제를 들어보고 싶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 싶은 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워크숍을 듣는 거예요. 너무 너무 좋았던 게 ... 일단 아까 시작할 때 말씀 드린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부분도 잘 알 수 있었고 특강은 사실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한명 한명이 말할 기회도 많지 않고 상호작용도 사실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주제선택 워크숍은 교생들이 쏙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상호작용을 하시기에 대개 좋았고 그 다음에 워크숍 내용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쉬웠던게 제가 6분 중에 한분을 들어가면 나머지 5분 거를 못 듣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듣고 있는 워크숍 내용이 너무 좋은데 다른 것도 이만큼 좋고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 내용이 A초등학교에서 나눠준 자료집에 내용은 있었지만 선생님께 직접 듣는 거랑 진짜 좀 다르잖아요. 시간이 많았으면 다른 것도 들을 수 있었을텐데 ... 이걸 못 들어서 아쉽다. 그만큼 그 워크숍이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학생 2: 저는 너무 너무 도움이 되었는데. 특히 담임선생님 특강 ... 담임 선생님이 학생 상담 관련해서 특강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상담지를 가지고 외부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그런 걸로 특강을 했는데 ... 너무 담임 선생님 짝어 주신 부분들을 보니까 이런 특성에서는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현직에 한걸음 더 나아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좋았어요.

면담학생들은 2주간의 교육실습 기간 중 첫째 주에 특강이 몰려 있고, 둘째 주부터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특강으로 인해 교실에 상주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레포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다. 학생 관련 활동 : ‘필수적 경험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A교대 3학년 교육실습생 대상으로 실습학교에서 학생 이해 영역에 대한 지도가 만족스러웠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89%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8〉 실습학교의 학생 이해 영역 지도에 대한 만족도

학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수
A초	18	0	1	0	0	19
B초	58	18	6	0	1	83
C초	9	2	0	0	0	11
D초	18	13	8	4	1	44
E초	4	4	1	1	0	10
F초	33	30	8	3	0	74
G초	13	6	0	0	0	19
합계	153	73	24	8	2	260
%	58.8	28.1	9.2	3.1	0.8	100.0

교육실습 만족도 조사에 기입된 주관식 문항 답변에서 실습 지도교사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던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답임 선생님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 관찰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 교육실습을 할 때 마다 다른 학년군의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시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만도 많은 시간이 노력이 드는데 그 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2018학년도 3학년 교육실습 만족도 조사 주관식 문항 답변)

그러나 면담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에 비해 학생과의 상호작용 기회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초의 경우 학생수가 적어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많았고, 교생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A초, B초, C초 교육실습생 대부분 학생 관련 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실습생이 숙제를 내어준 경우 학생들의 숙제 검사 기회를 통해 소통할 기회를 가졌다. B초의 경우 수시실습학교에서 전환된 관계로 교육실습 2주 중 1주 동안은 교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특강이 많이 진행되었던 관계로 교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학생 3: 2학년때 더 좋았던게 ... 3시간 하면서 그 시간에 애들이랑 대화를 했는데, 8개를 찢려고 하다보니까 애들이랑 뭐 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애들이 좀 싫어하기는 했는데 ... 수업후기를 내 봤어요. 21명이었는데 ... ‘내 수업을 들었잖아. 애들이 들은 거 써와. 뭐 배웠는지’. 그러면서 소통을 좀 했던 거 같아요. 아 ... 니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또 이부분이 잘 하고 있 ...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라. 수업 활동 : 구상해왔던 수업 vs 현실적인 수업

교육실습 Ⅲ은 수업·실무실습으로, A교대는 3학년 학생들이 6시간~8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현장학교에 권장 하고 있으며 교육실습 학생 중 일부 학생이 대표 수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3학년 학생들은 교육실습 Ⅲ을 수업 실습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해하고 있었다. 본교 3학년 교육실습생 대상으로 실습학교에서 수업(교수-학습)영역에 대한 지도가 만족스러웠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88%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수업 활동은 학교별로 학생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다음 수업에 대한 조언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수업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지도교사가 문제점 중심으로 지적을 하거나 초등학생들 앞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피드백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표 9〉 실습학교에서 수업영역 지도에 대한 만족도

학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수
A초	60	17	5	0	1	83
B초	4	4	1	1	0	10
C초	17	2	0	0	0	19
D초	12	7	0	0	0	19
E초	16	19	2	4	3	44
F초	8	1	2	0	0	11
G초	32	30	7	4	1	74
합계	149	80	17	9	5	260
퍼센트	57.3	30.8	6.5	3.5	1.9	100.0

면담 학생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D초의 경우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행에 대해 친절 한 안내를 받았고, 교수 학습에 필요한 자료 모두를 준비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E초의 경우는 수업 협의회를 통해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고 하였다. A초 교육실습생은 하고 싶은, 구상 해왔던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B초 교육실습생은 주요교과를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실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학생들을 파악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학교에 따라 수업 지도안 양식을 별도로 학교 양식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 1: 이건 칭찬인데요. 저희는 교생 수업도 협의회를 하기는 했는데 참관수업 협의회를 또 들어갔어요. A초등학교의 좋은 점이 수업 사전 협의회, 사후 협의회, 동료 장학 이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는데 ... 제일 좋았던 점이 어떤 점이냐면 ... 수업이 어떤 점이 잘됐고, 어떤 점이 못됐고 ...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의도를 물어보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수업이 선생님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아이들과 형성되었던 라포라든가. 선생님이 평소에 수업해 오던 방식들. 그런것들은 모르는 상태로 그 수업. 단편적으로 그 수업만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점 ... 이렇게 ... 수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나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담임선생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 4: 저희는 이제 5명, 담임 선생님, 교생 저까지 4명, 5명이 모여서 서로 ... 담임 선생님이 교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해 주시고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보고 계시면서 기록하시고 피드백 주시고. 그런데 이제 ... 교생이라고 좋은 말만 해 주고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어서 더 서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지도안 짜는 거에 대해서도 좀 학교마다 좀 다르더라구요. 선생님들마다 중점을 두는 부분도 다르기는 하지만 ...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자세히 피드백 받았고. (중략) 사실 지도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업 준비를 하는데 PPT 만들고 무슨 자료 만들고 이런 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서 ... 지도안 부분에 대해서 괜찮았고. 수업은 피드백은 저희 받은 원활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마. 교직실무 활동 : ‘지금 또는 교사가 되고 나서’

A교대 3학년 교육실습생 대상으로 실습학교에서의 교직실무 영역에 대한 지도가 만족스러웠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8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이다도 12.7%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면담 학생들은 교직 실무 영역은 주로 특강에서 다루어졌는데, 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졌고 실습과 같은 직접적인 활동 경험이 없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G초의 경우는 자료를 읽어보는 것으로 특강을 대신하였다. 학교에 따라서는 ‘NEIS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공문서도 예시하나 주시고 똑같이 작성을 해’ 본 경우도 있었다. NEIS 특강과 관련하여 현장 교사들은 ‘이게 굉장히 많이 사이트가 변하고 지금 배운 게 의미가 있나’ 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얘기하였다.

학생 2: 교직 실무 측면에서는 아까 NEIS 그거 관련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수업에만 중점을 뒀서 진행을 했었구요.

〈표 10〉 실습학교에서의 교직실무 영역 지도에 대한 만족도

학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수
A초	48	27	5	2	1	83
B초	4	4	1	0	1	10
C초	18	1	0	0	0	19
D초	12	7	0	0	0	19
E초	8	1	2	0	0	11
F초	12	12	13	4	3	44
G초	28	29	12	4	1	74
합계	130	81	33	10	6	260
%	50.0	31.2	12.7	3.8	2.3	100.0

바. 지도교사와 대학교수의 지도 및 동료 교생과의 관계 : ‘존재감 백 또는 제로’

학교들마다 실습지도교사의 수업이나 현장교사의 수업을 참관할 기회에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지도교사와의 경험이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도교사는 수업에 대한 피드백,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 제공, 학생과의 관계 형성 지원 등의 차원에서 의미있는 지도를 제공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면담학생들은 지도교사의 관계가 ‘Case by Case’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배려, 수업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 ‘각 학생에 대한 특성 설명, 수업에 대한 친절한 피드백(학습목표 도달의 중요성)’, ‘학생과의 관계 중시, 수업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 ‘매 수업마다 지도 강화, 발성 및 자세 교정,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 제공, 교구 사용법 안내’ 등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의 시범수업 참관과 관련하여 일부 교육실습생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어 부족한 점이 없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 6: 저는 E초이라서 ... 실습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니까 ... 저는 계속 첫째 주에는 계속 참관만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도 ... 근데 방금 교과목 전체 못했다고 했는데 ... 참관 진짜 많이 했는데도 ...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는 못 봤는데 그건은 어쩔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2주밖에 안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 6학년? 거의 전학년 수업 다 보고, 참관에 있어서는 그렇게 딱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어요.

학생 8: 저는 G초인데요. 어 ... 참관하는 거는 각 학년에 조금 더 적합하게 배당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3, 4학년군을 맡으면 그 쪽 학급으로 ... 참관은 4번에서 5번 정도 했고, 그걸 제외하고 담임 선생님의 수업을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관에 대해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현장 교사의 시범 수업 참관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마다 특강이 많아서 또는 시스템의 차이에 의해, 또는 수시실습에서 정규실습 학교로 전환되면서 담임교사의 시범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생 7: F초 같은 경우에는 6학급만 받았어요. 그래서 6학급의 수업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수업은 공개를 안 했어요. 전담선생님 수업도 공개를 안했어요. 그래서 영어나 체육같은 거는 아예 볼 수가 없어서 ... 1층에 갔을 때도 우리 반의 교생이 영어과라서 영어를 대표 수업으로 진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전담 선생님께서 수업 공개하기 싫다고 그래서 사전 지식 없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A교대는 각 학교별로 많게는 10명 넘게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있다. 개별 지도교수들은 1학기에 2회의 교육실습지도를 필수 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실습학생들은 실습지도교수의 존재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 교육실습지도교수가 교육실습기간 동안 만난 적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학생 2: 교수님의 역할에 대해 느끼지 못했다고 적었구요. 실습에 있어 교수님들이 와서 피드백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면, 크게 이긴 학생 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교육실습 평가 같은 연구는 학교홈페이지 통해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거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과별로 몇 명씩 해가지고 차라리 실습 지도교수님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들 말 좀 잘 할 것 같은 학생들 뽑아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 걸 취합해도 그런 것도 의미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한반에 배정되는 실습생의 수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 정도가 한 반에 배정되었다. 대체로 여러 심화과정 학생들과 함께 배정되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서로 간에 수업 준비와 실행에 있어 배울 점들이 많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E초의 경우는 서로 수업 동영상을 촬영해주고 수업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수업준비 및 설계, 협회의 등을 통해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4. 교육실습(III) 이후의 경험 : 개별 예비교사에 따른 차별적 경험

교육실습 성찰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며, 개별 교수가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실습 평가는 인트라넷에서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 내용은 대학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학교 배정, 수업(교수-학습)·교직소양·교직실무·학생이해 영역 지도에 대한 만족도, 교육실습록, 교육실습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교육실습 수기는 매년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대상으로 교육실습 수기를 공모하고 공모한 교육실습 수기 중 우수한 수기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전혀 모르거나 인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A교대 3학년 학생들이 교육실습 준비-교육실습-교육실습 이후 단계별로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3학년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 사전-교육실습 기간-교육실습 이후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육실습 경험과 이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보이는 인식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양가적 감정과 양상을 보였다.

우선, 집중집단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육실습의 목적을 학년별로 달리 규정하면서, 3학년 교육실습은 ‘본격적으로 교직현실 경험하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조석훈(2008)이 제시한 교육실습에 접근하는 구조적 틀에 비추어보면, 학생들의 교육실습의 목적 또는 의미 부여는 독자적 사회영역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교육실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3학년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종국 단계 또는 중간 단계 중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교직경험습득, 교직적성점검, 학교교육의 현황 이해라는 맥락에서 두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실습 사전 경험과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의 경험은 ‘대학과 예비교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을 보였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혀 유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았다. 교육실습학교 결정의 맥락에서도 학생들이 체비뽑기이라는 복불복 방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별 교육실습의 난이도, 교통편 등의 요소를 고려한 예비교사들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이는데 이것이 대체로 학생들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교육실습 기간의 경험은 대체로 ‘우연에 맡겨진 교사로서의 성장’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3학년 학생들은 ‘무용 또는 유용’한 교육실습학교 오리엔테이션, ‘학교마다 너무나 다른’ 교육실습 특강, ‘필수적인 경험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학생활동 경험, ‘구상해왔던 수업 또는 현실적인 수업’, ‘지금 또는 교사가 되고 나서’ 배울 교직 실무 경험, ‘존재감 백 또는 제로’ 교육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실습 지도교수 라는 인식을 보였다. A교대 자체적으로 교육실습 자료를 개발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일관성있는 교육실습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은 어떤 학교에 배정되느냐, 어떤 교육실습지도교사를 만나느냐, 어떠한 자세를 가진 예비교사이냐에 따라 그 질에 있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교육실습 학교 배정을 학교가 아닌 지도교사를 기반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실습 이후 경험은 개별 예비교사에 따른 차별적 경험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A교대의 경우 교육실습 이후 성찰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개별 교수자의 재량과 의지에 따라, 개별 예비교사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차별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에 적극적인 예비교사의 경우는 교육실습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건실하게 거치면서 교사로서의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A교대 교육실습과 관련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의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주제와 내용을 학년별로 달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학년의 경우 참관실습이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교육실습이므로 기본사항 중심으로 안내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2학년의 경우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실행하는 학년이므로 지도안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과의 활동 경험, 관계 형성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장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학생 이해, 학생지도, 수업관련 특강 및 실천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자신들의 배우고 학습할 지식들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셋째, 교육실습을 통한 교사로서의 성장 경험이 우연에 맡겨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표준적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실습 과정을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 또한 교육실습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실습학교간 협의회를 제안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간 정보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대학교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실습 이후 성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안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의 의미있는 성장 경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실습 경험은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로서의 적성을 확인하고 교직을 실제 경험하고, 교육활동을 본격적으로 해 본다는 점에서 교사양성교육과정의 어느 교육과정보다 의미있고 유용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실습을 통한 교사로서의 성장이 우연에 맡겨지는 과정이 아니라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구성되고 예비교사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실습에 대한 연구 차원에서 한 가지 주목할 현상이 있다. A교대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는 집중집단면담 조사 결과에 비해 교육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문조사에 기반한 연구의 경우는 교육실습생의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집중집단면담조사에 중점을 두는 경우 면담참여자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실습에 대한 의견이 편포성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들 인식의 기저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0. 1. 28. ※ 논문 수정일: 2020. 2. 21 ※ 게재 확정일: 2020. 2. 24.

〈참고문헌〉

- 강현석(2013). 한국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 교육에 대한 성찰과 미래 방향. **한국교원교육연구**, 30(3), 47-74.
- 김병찬(2005).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가. **교육행정학연구**, 23(4), 49-76.
- 김영주(2018). 교육실습에 대한 초등예비교사들의 환류분석: T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2), 229-239.
- 김종우(2018). 교육대학과 실습학교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학교현장교육실습’ 개선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271-291.
- 남운경, 이효진, 김혜영, 정주훈(2019).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경험에 근거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교육혁신연구**, 29(1), 65-89.
- 노숙원, 박일수, 설양환(2018). 국내 교육실습 연구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5), 309-333.
- 박기용(2008). 교육실습을 통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론적 신념과 수업 개념의 변화 양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109-126.
- 백순근, 함은혜(2007). 중등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이 ‘교육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20(4), 1-29.
- 설양환, 박효원, 박일수(2019). 교원양성기관 학교현장실습 운영 현황 분석: 초등교원양성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6(1), 51-77.
- 윤현성(2019). **초등 교육실습에서 지도교사의 특성이 교육실습생의 수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승현, 한대동(2016). 초등학교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실습 지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1), 191-216.
- 이용학(2014). 초등학교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가르침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0(1), 79-114.
- 전제상(2018). 초등교육기관의 교육실습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교육논총**, 55, 1-21.
- 정혜영(2008). 교육실습을 통한 교육실습생의 교육신념 변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21(2), 235-257.
- 조석훈(2008). 교사양성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실습의 가치. **교육행정학연구**, 26(2), 317-342.
- 최성욱(2010). 교육실습의 개념 정립을 위한 탐색적 소고. **교육원리연구**, 15(2), 175-203.
- 황윤한(2007). 교육대학 교육실습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광주교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0(1), 301-333.
- Lortie, D. C. (1975). *Schoolteacher: a sociological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진동섭 역(1996). **교직사회: 교직과 교사의 삶**. 서울: 양서원.

〈Abstract〉

An Analysis on Experience of Prospective Teachers and Its Meaning in the Teaching Practicum

Kim, Min-Jo¹, Lee, Seungmin^{1, 2}

Teaching practicum is a key element in the curriculum for training teachers, in which prospective teachers can apply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to the actual practice of teaching and learning. With this issue in mind, this study analyzed what prospective teachers (third-year students in an university of education in Korea) experienced in their teaching practicum, and what their experiences mean in terms of primary education.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and a focused interview. Som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tudents defined the purpose of their teaching practicum differently, and recognized the teaching practicum as the experience of teaching reality. Secondly, pre-experiences in teaching practicum were found to be 'depending on the will of college and prospective teachers', 'necessary but useless', and 'determined by luck but depending on willingness'. Thirdly, the experience of the training period was recognized as 'growth as a teacher entrusted to chance', 'useful or useless', 'very different from school to school', 'necessary but not essential', 'conceived classes or realistic classes', 'now or after becoming a teacher', and 'hundred or zero of their existence'. Som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different topics and contents of the orientation for each teaching practicum. Secondly, prospective teachers need some opportunities to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other teachers and form relationships with them. Thirdly, Third, it is necessary to allow prospective teachers to have some standard experience, and to provide meaningful opportunities for their professional growth.

Key Words : teaching practicum in elementary school, teaching practicum, experience of prospective teachings, meaning of teaching practicum

1.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 Corresponding author